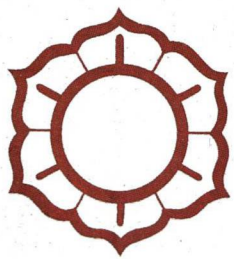


불교총지중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에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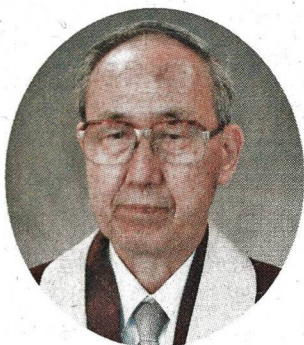
총지중보

2003년
11월 1일
토요일
제50호

이 달의 종조법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목표가 있어 움직인다. 이 움직이는 것이 곧 생활이다. 이 생활은 곧 인연과의 순환이다. 이 순환이 나쁜 것을 악순환이라고 한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선만이 가능하다. 한낱한 것을 없애는 것은 열반인 것과 같이...

발행인 : 법공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총지중 종령에 수성 종사 추대 종단 화합과 철저한 수행으로 정진 강조



총지중 제8대 종령
수성 종사

총지중은 10월 24일 총지중 통리원에
서 전국 스승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수
성(수명 최봉해)종사를 제 8대 총지중
종령(종정)으로 추대하였다.
총지중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추
계강공회 기간동안 제7대 종령인 고 록
정 대종사님의 후임으로 원로회의에서
수성종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승단

총회에서 승인하였다.
수성(최봉해)종사는 법랍 50, 세수 74
세로 1930년 경북 영일에서 출생하여
불교와 인연을 맺어 수행을 하시다가
총지중 창종 당시부터 대구에 있는 개
천사, 제석사, 단음사 등 대구·경북
지역에서 여러 사원을 개설불사하며 총
지중을 반석위에 올려놓는데 일익을 담
당하였다.

또한 대구·경북 교구장, 중앙종의
회 의장, 종립 동해중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종무행정을 관장하였으며 철저한 계행
과 수행으로 총지중의 중흥을 진작시켰
다.
수성종사는 종령추대에 즈음하여 "종
단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며 원정 종조
님의 교상과 사상을 계속 발전시키며,

원정 대성사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셨던
이치를 모든 승직자 및 교도들이 깨달
아 철저한 계행과 수행으로 정진해야

하며, 종무행정에 있어서는 중법을 개
정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개
정하여 시행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법을
관장하고, 종령의 임기도 80세 정년으
로 정하여 젊은 세대들의 육성에 심혈
을 기울이며 바른 전통은 계승하고, 불
합리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하여 총지
중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
였다.

한편 총지중은 11월 18일 서울 강남
구 역삼동에 위치한 총지사에서 종령추
대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탄생할 관성사 신축공사 착공 지진불사

관성사 신축을 위한 지진불사가 10월
17일 서울·경인교구 스승님과 교도들
이 동참한 가운데 신축공사 현장에서
봉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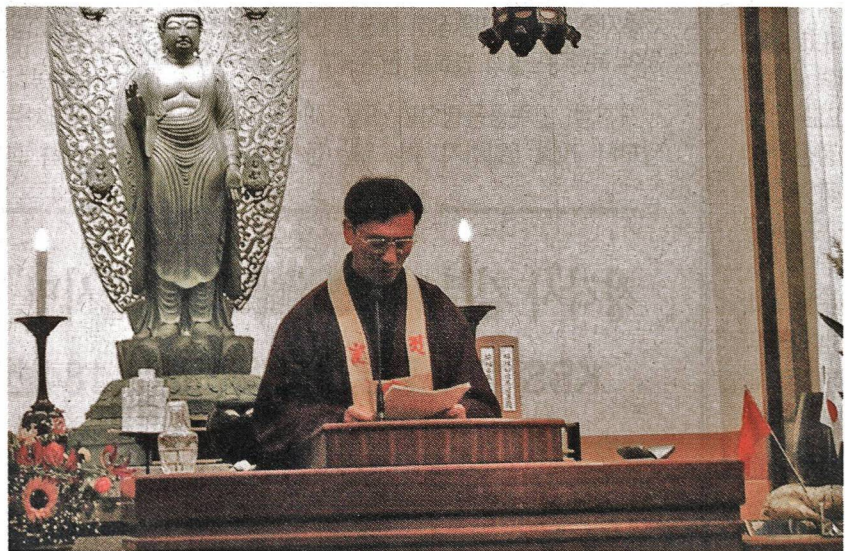
관성사는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에 대
지139평, 건평168평의 3층건물로 총예정
공사금액 8억3천만원, 공사기간 6개월로
총지중 유지재단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관
성사는 올해 완공한 광주 법황사, 전주
흥국사와 같은 양식으로 전통적인 한국
의 미와 불교적인 색채를 가미하여 한

옥양식을 적용하여 건축할 예정이며, 관
세음보살의 진언수행자로서 스승님 및
교도들이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서울의 중심지에서 밀법을 포교하
는 장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성사 신축으로 인해 관성사에
서 수행하고 있는 교도들은 "새로운 사
원이 신축됨으로 인해 자녀들과 친척들
이 함께 불공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
여 가족제도에 일익을 담당하고 밀법을
포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하면서
기쁨과 환희심을 감추지 못했다.

세계평화기원법회 제6차 한·중·일 불교도대회



제6차 한·중·일 불교도대회 학술세미나에서 총지중 법성 종사가 "계율의 사회적
확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한·중·일 불교도는 10월 29일 제6
차 한·중·일 불교도 대회가 열리고
있는 일본 교토 정수사에서 한·중·일
불교도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가두
행진과 함께 "불교와 평화"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중·일 불교 대표자들은 부처님
의 자비정신을 구현하는 마음으로 인류
의 생명을 존중하고 오세종 불살생계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
하기 위해 이번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법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불
교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국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
어주기 위해 이번대회에 참석한 인원들
점심공양의 금액을 유니세프에 전달하
였다.

이번 한·중·일 불교도대회에서 총
지중은 법공 통리원장, 의강 중앙종의회
의장, 법성 사무원장, 화령 법장원 연구
원이 참석하여 총지중의 종지와 수행체
계를 한·중·일 삼국에 포교하였으며
일본의 유명사찰을 방문하여 일본의 수
행체계를 체험하여 총지중의 수행체계

등 발전에 공헌하기로 하였다.
한편 법성 사무원장은 학술세미나에
서 "계율의 사회적 확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여 총지중의 위상을 고양하였
다.

죽비소리

말로 통하고 마음이 통함이며
태양이 허공에 있음과 같구나
오직 견성하는 법만 전하여
샷된 가르침을 깨뜨리리.
법에는 돈(頓)과 점(漸)도 없
는 것
중생의 미혹함과 깨달음에 따
라 늦고 빠른 것
다만 이 견성하는 문을
어려서는 이들이 알지 못한다.
말로하면 만가지로 벌어지지만
이치에 들어서면 모두가 하나
번뇌로 가득찬 어두운 방에
지혜의 밝은 태양 항상 밝히리.
- 육조 혜능대사, 중에서

총지중캠페인

올바른 투자방법

요즘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을 보면 재테크
에 대한 기사나 정보를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다.
재테크라는 말은 흔히들 말하는 "돈버는 기
술" 재무 테크놀로지 (financial thcnology)의 합
성어이다. 즉 금융기술을 말하는 것이다. 자본주
의 사회에서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돈을 투자해
서 돈을 벌수도 있는 것이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다. 1980년 대 초 일본은 각 기업들에게 재
테크의 기회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었
다. 그러나 보니 각 기업은 생산이나 영업보다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에 더 많은 열을 올렸고
1990년대 일본의 증시가 폭락하고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본 기업은 천문학적 손해를 입었
고 이들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준 금융회사들도 엄청난 부실에 시달렸고 그 영
향은 일본 전체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
다. 특히 부동산을 사고팔아서 이익을 보자고
하는 투기적 성향이 강한 재테크에 몰리고 있다
는 보도와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적절한 행
정적인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담당 행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
책이 논의되고 곧 시행 될 것이라고 하지만 얼
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들이 투
기 목적으로 부동산에만 투자된다면 국가 경
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또한 일반 직장인이
10년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거액의 금액을 단
한차례 부동산을 사고팔아서 쟁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쉽게 지치게 한
다. 그래서 빚을 내어서라도 우리 주변의 많은
가정에서 주식이나 증권,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
산을 증식하고자 하지만 크게 만족해하는 가정
은 보지 못한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마도 투기
성이 강한 투자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투기성
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확률적으로 희박하고
손해 볼 위험이 크다. 그래서 다시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투기성이 더 강하고 확률이 더
희박한 곳에 투자를 하는 악순환이 진행되어 마
침내 가정까지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
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
로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 증거로
요즘은 주부 은행강도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
도 얼마 전 보도 되었다. 주식에 투자하기 위하
서 신용카드로 돈을 대출하였고 그 투자의 실패
로 그 주부는 은행강도 짓까지 하게 되었다. 잘
못된 투자의 결과이다.

투자는 꼭 물질적인 증식만을 위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충족도 중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다.
내내에게, 남편에게, 어머니, 부모님에게 그리
고 내 주위에 있는 정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 다정한 말 한마디 이 모두가 그들을 위하
고, 나를 위한 그리고 부처님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기위한 훌륭한 투자인 것이다.

약 력

- 법 명 : 수 성 (修成)
- 속 명 : 최봉해 (崔鳳海)
- 간 지 : 경오
- 생년월일 : 1930.6.7 출생지: 경북 영일
- 전법관정수계 : 1972. 12. 30.
- 행계품수 : 대법사(함마급) - 1972.12. 30
- 정 사 (정정지) - 1984. 4. 1
- 대정사(밀인지) - 1989.10. 1
- 종 사(출세간위) - 1994.10. 1
- 출가이력 :
1972. 12. 30 대구선교부 개설
1973. 10. 17 재단법인이사
1976. 4. 20 재단법인감사
1976. 4. 20 원경서원당주교
1980. 11. 11 복해서원당(제석사)개설
1982. 5. 12 개천사주교
1982. 10. 22 시암원장
1985. 4. 9 인덕서원당(단음사)개설
1985. 11. 18 대구, 경북교구장
1987. 2. 9 원의원및대구경북교구장
1989. 10. 18 중앙종의회 의원및의장
1991. 4. 1 동해중학교 이사장
1991. 10. 14 정정지문위원
1992. 8. 25 중앙종의회의장
1994. 9. 14 동해중학교 이사장
1994. 10. 1 출세간위 종사 품수
1998. 9. 14 동해중학교 이사장 (現)

청소년과 함께 진리와 함께 총지사 『워드 드라마』 발간

"하늘에서 철보가 비 오듯이 내린다
해도 욕심은 오히려 만족함을 모르니
즐거움은 잠깐이요 괴로움은 많음을 현
명한 이는 이것을 깨달아 안다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 법보시
『워드 드라마』를 총지사 법등 정사의
주관으로 통리원 교무 및 동해중학교
불교반 학생, 지도교사들의 집필로 10월
1일부터 발간하게 되었다.

총지중 및 불교계에서는 청소년 포교
에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 포교 활
성화 차원에서 『워드 드라마』의 발간은
청소년의 포교접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총지사 법등 정사는 "청소년은 우
리의 보배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종교 형태를
보면 기독교와 개신교에서는 청소년들
의 포교에 박차를 가하며 적극적으로

포교하여 미래에 불교인의 수는 상대적
으로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총지중 및 불교계는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한
포교방법의 개발과 혁신을 통해 꾸준히
포교의 활성화를 기해야 하며 이번
출판한 『워드 드라마』는 소재자로 청소
년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
으며, 차후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
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워드 드라마』는 매달 1일 발간
하며 정기 간행물로 총지중 청소년들의
포교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되며 청소년
들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들에게 불교의
진리를 전파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
해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진작시킬
것이라 기대된다.

총지중 제8대 종령 추대식

천년의 잠을 깨고 일어난 정통 밀교종단 총지중! 진언 염승으로 즉신성불의 큰 길을 열어가고 있는 총지중의 제8대
수 성 종사 종령 추대식을 사부대중을 모시고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총기 32년(2003년) 11월 18일 오후2시
- ◆ 장 소 : 불교 총지중 총지사 서원당(3층)
- ◆ 대 상 : 사부대중
- ◆ 연락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552-1080~3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법 공



사설

신임 총령에 기대를

종단의 기강과 혁신의 조화를 이루어야

지난 5월 특정 총령의 임직 이후 장기간의 공백 끝에 마침내 제 8대 총지중 총령이 추대되었다. 이번에 총령으로 추대된 수성 종사는 해행이 원만하고 인품이 원만하여 종단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인물로 거론되어 승단의 압도적인 지지로 총령에 추대되기에 이르렀다. 창종 1세대들이 대부분 임직하고 뚜렷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승단이 화합단결하여 원만한 방식에 의하여 총령을 추대했다는 것은 향후 종단의 미래를 밝게하는 전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총령추대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범공통리원장과 집행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처신은 총령 추대 이후에도 갈등의 후유증이 없도록 최선의 배려를 했다는 점에서 향후 종단 운영의 귀감이 될 뿐 아니라 종단의 부러움을 사는 쾌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장기간의 공백기를 가졌으나 서로간의 대화에 의하여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추대형식으로 총령을 추대했다는 것은 향후 종단이 화합하고 심기일집하여 교세를 확장하는 데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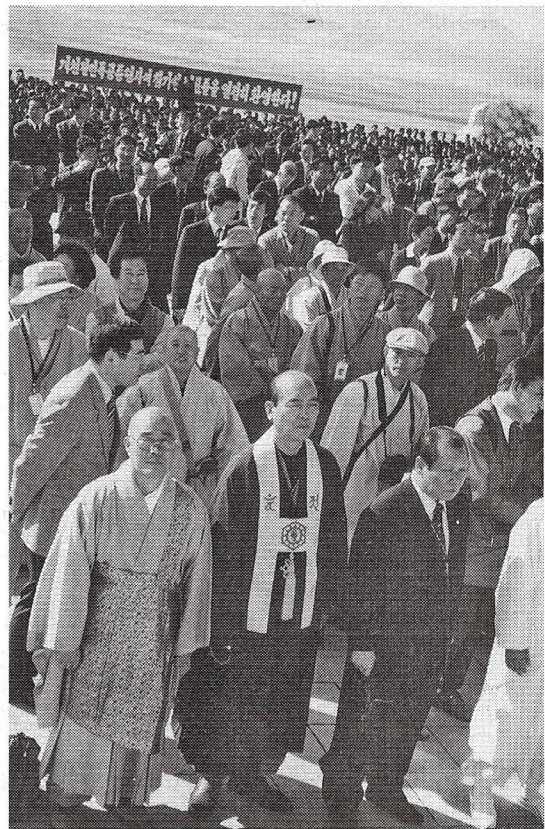
또한 수성종사께서는 추대가 확정된 후 밝힌 소감에서 종단화합과 젊은 세대의 유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며 종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 총지중 본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이제 총지중은 새로운 세대의 총령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에 올라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종단에서, 특히 본 종단과 같은 신생종단에서는 정신적 지도자가 어떠한 자제로 임하느냐에 따라 종단의 발전방향과 속도가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추대되는 수성대종사의 지도력이 크게 기대된다.

특정 전 총령의 재임 기간동안 산적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돌파 하려면 신임 총령의 과감한 선택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신임 수성종사는 법도를 세우고 원칙을 고수하는 데에는 철저하기로 정평이 나 있으므로 그동안 해이해진 원칙을 바로잡고 종단의 기강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에 직면하여 새로운 교화방법을 발굴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하여 종단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 있어서는 얼마만큼의 역량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더구나 총령의 위치는 오직 종단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상징으로서 처신해야 하는 만큼 총령의 사상을 교화와 행정 일선까지 철저하게 주입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령은 통리원을 비롯한 집행부와 교감을 돈독히 하여 통리원장을 중심으로 총령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행여나 총령의 의욕과잉으로 과거처럼 행정 일선에 대하여 일일이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형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창종 1세대의 특성상 그러한 점도 묵과될 수 있었으나 자칫하면 집행부의 의욕을 꺾고 일선 승직자들간의 불화를 초래하는 폐단이 있어왔기 때문에 신임 총령은 이 점을 유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에 더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담보상태에 있는 교세확장을 위하여 총령이 정신적 지도자로서 큰 틀을 열어 행정부와 일선 승직자가 의욕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과거의 법만 고수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종단이 낙후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떤 면에서 우리 종단은 비상체제하의 과도기적 위치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총령이 시야를 넓게 가지고 과거의 틀을 깨고 나오는 일이다. 전 승단은 신임 총령 수성 종사의 명철한 판단과 훌륭한 지도력으로 총지중이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염원하고 있다.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9월 30일 평양에서 개최



◇총지중 범공 통리원장이 개천절 민족공동행사에 참석하여 북한대표들과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개천절 민족공동행사가 9월 30일 10월 5일까지 5박 6일 동안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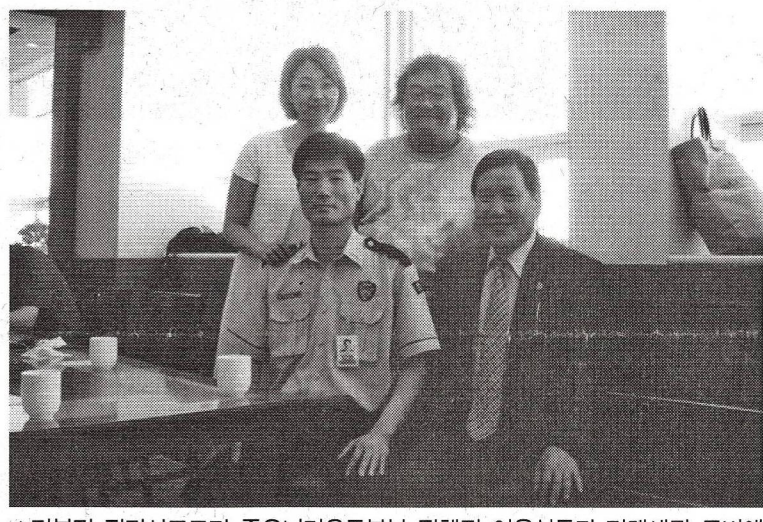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중순에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실무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남측에서 300명으로 구성되어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하며, 10월 3일 평양 단군릉 앞에서 개천절 기념식과 남북합동 문화공연, 통일기원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남북공동 학술회의, 단군역사 및 단군수련법 실습, 묘향산, 구월산 삼성사, 백두산, 평양 일대의 단군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이행 행사에 참석한 범공 통리원장은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는 범민족적인 행사로 단일 민족이면서 해방 후 50여년 동안 부모, 형제들이 이산가족으로 생이별을 하며 자유롭게 만날 수 없어 슬픔과 비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민족간의 단합된 모습으로 화합, 단결하기를 기대하며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북한 불교도들과 하나가 되어 공동법회를 개최하기를 지심으로 서원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평양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 참석한 범공 통리원장은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는 범민족적인 행사로 단일 민족이면서 해방 후 50여년 동안 부모, 형제들이 이산가족으로 생이별을 하며 자유롭게 만날 수 없어 슬픔과 비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민족간의 단합된 모습으로 화합, 단결하기를 기대하며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북한 불교도들과 하나가 되어 공동법회를 개최하기를 지심으로 서원한다."고 말하였다.

정각사 김부길교도 "베스트친절시민" 선정

KBS 1TV 좋은나라 운동본부 184번째



◇김부길 정각사교도가 좋은나라운동본부 진행형 이음식등과 김해세관 로비에서 친절시민 선정을 축하하고 있다.

총지중 정각사 교도이며, 김해세관 통관지원과에 근무하는 김부길(48세)각자가 8월 22일 KBS 1TV에서 방영하는 "좋은나라 운동본부" 베스트 친절시민을 찾아오는 코너에서 184번째 친절시민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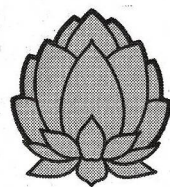
김부길 각자는 송해순보살(정각사 교도)사이에서 3남매를 두고 있으며,

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원생인 허재형 군이 애완용고양이 3마리를 일본에서 구입하여 통관하기 위해 김해세관을 찾아 왔으나 민원인이 동물검역소에서 고양이 검역에 필요한 수출국 검역서류가 없어 곤경에 처하고 있을 때 김부길씨는 일본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 하는 등 친절을 베풀어 감사의 글이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는 친절 시민으로 검증하기 위해 "김해공항 대합실에서 50대 아주머니가 식당을 찾자 2층에 위치한 한식당을 안내한 후 된장찌개를 시켜 주었으나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고 하여 김부길씨가 직접 4,000원을 대신 지불해 주었으며, 또한 김해세관 사무실로 오는 도중 60대 아저씨가 재혼 할 러시아 여자가 입국예정인데 러시아 말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를 어떻게 표현하는 지 묻자 A4용지에 러시아어로 적어주고 발음까지 알려주는 친절함을 보여 주었다." 두 번의 테스트 검증을 통해 베스트 친절시민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김부길 각자는 베스트 친절시민으로 선정된 소감에서 "베스트 친절 시민으로 선정된 것은 부처님의 공덕이며 이러한 일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어서 감개무량하며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이 되어 살기좋은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활동

방향에 대하여

재무부는 종단의 현금 인출금 및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일반회계에서는 경리와 자금담당업무를 지칭하는 업무로 그 중요성은 중추적이며 업무 또한 신중성과 냉철함을 겸비하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회사가 가정에서도 자금의 운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윤을 창출하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부담도 존재하지만 자금운영의 형태와 업무의 능률성 확보에 따라 회사나 가정의 존망을 결정하게 된다.

며칠 전 불교신문에서 조계종은 경영컨설팅 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예산 및 자금운영, 인력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

안하고 재무회계 전산화로 합리적인 자금운영의 방법 및 합리적인 예산의 집행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앞으로 종교단체에도 전문 경영인적인 마인드로 자금의 운영과 관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종단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종교단체들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며 발전의 일로를 모색해야만 생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종단은 재무부의 업무 형태를 보면 모든 업무를 수작업과 지출수리만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재래식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과거의 지출내역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장부를 확인해야 하는 업무의 능률성과 효과성의 저해를 가져오고 있어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재무부의 모든 업무를 프로그램화하고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종교단체는 보살님들이 보시한 회계금으로 종단의 각종 행사 및 종단운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과 편성에 제한점이 존재한다. 또한 재무부는 한 명이 담당함으로써 경리적인 업무만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합리적인 운영과 투자로 이익과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수익을 높이는 방안과 업무의 능률성 확보차원에서 업무의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재무부는 종단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인 만큼 그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고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 인 자금 운영을 전담하고

안인 이루어지고 모든 업무의 전산화와 업무의 간소화 및 전문화가 이루어질 때 종단이 발전하고 각종 사회복지 및 포교활동을 위한 자금의 활용 및 제반 사항에 대한 투자를 기함으로써 고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즉 통리원의 업무는 총무·교정·재단·재무·사회부로 구분되어 있지만 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결재의 단계도 너무 많아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으며 통리원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부여하여 진행해야 하지만 통괄적으로 관할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및 능률성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의 간소화 및 전문화 차원에서 담당자의 의견을 중시하며 담당자와 부장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종무행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본다.



안도영 교무/통리원

알림방

- 총지중 제8대 총령에 수성종사를 추대함
- 총령추대식을 11월 18일 서울 총지사에서 봉행함
- 제62회 추계강공회를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통리원에서 개최하였음
- 지인사 주교인 연등원 전수반 모친께서 10월 21일 열반함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3년 9월 25일부터 2003년 10월 27일까지

개천사 박명선 5,000	만보사 이설강 10,000	수인사 김진 10,000	자석사 체춘자 5,000	정각사 조현필 5,000
개천사 박상순 10,000	밀인사 김덕배 20,000	수인사 원봉 10,000	정각사 강길순 10,000	정각사 최분순 20,000
개천사 신정희 100,000	밀인사 김덕자 20,000	수인사 이순자 5,000	정각사 구정희 20,000	정심사 박옥란 10,000
개천사 이장섭 5,000	밀인사 배태임 5,000	수인사 이호순 30,000	정각사 김애자 5,000	지인사 임순옥 5,000
개천사 지광 100,000	밀인사 신대식 5,000	수인사 최공자 10,000	정각사 김점남 10,000	총지사 박선 10,000
건화사 교도일동 180,000	밀인사 신동의 5,000	수인사 한애숙 20,000	정각사 김정자 10,000	총지사 이인성 20,000
관성사 백혈화 5,000	밀인사 신동희 5,000	시범사 지성 60,000	정각사 김지현 10,000	통리원 인선 20,000
관성사 백혈화 5,000	밀인사 이연수 10,000	실보사 방원순 10,000	정각사 남숙자 20,000	혜정사 권영숙 5,000
관성사 이순삼 10,000	밀인사 이재호 10,000	실보사 이순옥 5,000	정각사 노점호 20,000	혜정사 수증원 30,000
관성사 정인순 10,000	밀인사 이혜성 5,000	실지사 보생각 5,000	정각사 박정현 10,000	혜정사 자성신 5,000
관성사 조경숙 10,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실지사 손기성 10,000	정각사 박인수 10,000	혜정사 정길오 5,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백월사 박삼순 5,000	실지사 이숙례 10,000	정각사 신겨자 10,000	혜정사 조숙자 10,000
기로원 대관 20,000	벽룡사 무명씨 3,000	실지사 이옥분 10,000	정각사 신옥필 10,000	혜정사 해보심 10,000
기로원 대자행 20,000	벽룡사 박덕서 5,000	실지사 이화수 5,000	정각사 이란기 10,000	무명씨 10,000
기로원 법장화 20,000	벽룡사 보심관 5,000	실지사 정경자 5,000	정각사 이상열 10,000	박남섭 10,000
기로원 상지화 20,000	벽룡사 오미순 5,000	실지사 정연수 5,000	정각사 이수임 10,000	지신주 10,000
단향사 공철봉 2,000	성회사 김한순 10,000	실지사 주영채 5,000	정각사 이옥희 35,000	지심행 10,000
덕화사 서영순 10,000	성회사 법공 100,000	운천사 김부자 20,000	정각사 정금순 3,000	
만보사 박정심 10,000	성회사 우담바라 100,000	운천사 배도련 10,000	정각사 정희연 10,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자석사 배무자 10,000	정각사 조춘금 10,000	

후원회 가입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 통산번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이달의
설법문안

자식을 위한 기도

해마다 입시철이면 교회나 성당이나 절간을 물들 것 없이 부모들은 자식의 합격을 위해 기도와 축원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기도란 무엇을 도와달라고 애걸하는 일이 아니다. 다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기도에는 속엿말이나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과 간절함이 필요하다. 진실과 간절함이 없는 우리 뜻에 울림이 없다. 그러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찾아 나설게 아니라, 맑은 눈과 투명한 가슴으로 자기 몫의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

로는 가령 도둑질이라도 해서 아들이 합격만 해 준다면 주저없이 도둑질이라도 하겠더라는 것이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이런 원색적인 집념으로 인해 혈통이 이어지고 종족이 보존되며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을 법하다. 그러나 자식의 건전한 인간형성을 위해서는 원색적인 감정보다도 이성적인 이해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

나 낡은 관념을 가지고 한없이 뻗어갈 아이들에게 역지로 덮여 씌워서는 안 된다. 자식은 부모를 거쳐 이 세상에 나오긴 했지만 부모의 것은 아니다. 다른 일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식 일만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줄 것이지 부모의 생각이나 관념으로 유아매려고 해서 안 된다.

대개의 부모들은 오늘 우리들

가지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켜보는 일은 보다 근본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관심은 대학에 들어가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발판을 이루기 때문이다.

지식과 기능만을 중요시하고 있는 현대교육은 인간 존재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깨닫게 하지 않고, 오로지 더 많은 이론과 사실만을 투입시키고 있다. 바람직

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기의 삶에 얼마만큼 성실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또 사람은 저마다 자기 나름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든 안 가든 시절 인연이 오면 그 그릇을 언젠가는 채우기 마련이다.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간다고 말했던 더글러스 맥아더의 아들들을 위한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우리를 반성해 보자 "저의 자식을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 주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기도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 자녀교육은 일류대학보다 인간적인 삶의 가치부여

는 도리어 어린 자식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겨준다는 사실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학교의 선택이며 전공까지도 부모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우길 때 아이는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주적인 선택과 판단의 능력을 상실, 매사에 부모의 눈치만을 보면서 의존하려는 나약한 무골충이 되고 만다.

자식을 부모의 예술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 부모의 굳어진 생각이

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그릇된 가치의식이며 온갖 타락 현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오로지 자기 자식들이 세상에서 입신출세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또 어떻게 해서든 대학에 들어가 주기만을 바라지 그 밖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물론 대학에 붙느냐 떨어지느냐는 눈앞에 닥친 중대한 관심사이지만, 자기 자식이 인격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어떤 생활태도를

한 교육은 우리를 자신을 아는 일에 이어져야 한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더라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사는 삶은 가치부여를 할 수가 없다.

아무 걱정 없이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한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간적인 깊이와 폭을 재수를 거친 학생들한테서 더러 느낄 수가 있다. 사람은 좌절과 절망을 통해 안으로 눈이 열리고 거듭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인생의 도상에서 볼 때 한두 해 늦게 출

생활속의 밀교 오대서원(五大誓願)의 실천이 대승보살의 행(行)

"중생가가 없는지라 제도하기 서원이며, 복자가 없는지라 모으기를 서원이며, 법문가가 없는지라 깨치기를 서원이며, 여래가가 없는지라 섬기기를 서원이며, 보리위가 없는지라 증득하기 서원이다."

참회서원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의례(儀軌)가 오대서원이다. 오대서원(五大誓願)은 다섯가지의 큰 서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오대원(五大願)이라고도 한다. 이 서원은 대일여래의 본원(本願)이면서 모든 불보살님들의 총원(總願)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불교의식에서는 사홍서원(四弘誓願)을 행하고 있으나 종조

즉, 법문무변서원학(法門無邊誓願學)을 법문무변서원각(法門無邊誓願覺)으로, 무상보리서원성(無上菩提誓願成)을 보리무상서원증(無上菩提誓願證)으로 고치신 것이다.

이 오대원(五大願)을 밀교의 오불(五佛)에 비유하여 불타의 오위(五位)에서 일으키는 다섯가지의 서원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즉 중생무변서원도는 아축불의 보리심(菩提心)과 자내증(自內證)의 서원이며, 복자무변서원집은 보생불의 복덕구족(福德具足)의 서원이요, 법문무변서원각은 아미타불의 전법륜지(轉法輪智)의 서원이며, 여래무변서원사는 불공성취불의 대정진(大精進)의 서원이요, 보리무상서원증은 대일여래의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의 서원인 것이다.

오대서원은 대일여래의 본원 대승보살의 실천행이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밀교경전에 근거하여 오대서원을 종단의계로 택하셨다.

오대서원은 사홍서원의 네 가지 서원에 한가지 더 보태어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대서원은 내용과 의미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보살행을 보여 주는 서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없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 한없는 지혜와 복을 모으겠다는 행원(行願), 한없는 법문을 배우고 한없는 부처님을 섬기고 위없는 보리를 이루겠다는 발심(發心)은 바로 상구보리 화하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 보살행이요, 심연(深淵)의 신심(信心)과 대보리심(深淵)의 발현(發顯)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오대서원의 한문원문은『불경종승다라니염송의계법(佛頂尊勝陀羅尼念誦儀軌法)』에 실려져 있다.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복자무변서원집(福智無邊誓願集) 법문무변서원학(法門無邊誓願學) 여래무변서원사(如來無邊誓願事) 무상보리서원성(無上菩提誓願成)"이라 하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여기에 부분적으로 손질을 가하여 뜻에 맞도록 고치셨다.

서원이란 마음 속으로 염원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願)함을 일으켜서 성취하려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 서원에는 부처님이나 보살이 반드시 성취코자 하는 서원도 있고, 중생이 부처님에게 맹세하여 그 성취를 기원하는 서원도 있다. 부처님이나 보살이 성취코자 하는 서원은 무명중생을 구제하여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맹서이다. 석가불의 5백대원이나 아미타불의 48대원, 약사여래의 12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생들이 불보살님께 성취를 기원하는 것은 작게는 개인의 소원성취일 수도 있고, 크게는 일체중생을 위한 서원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사홍서원이나 밀교의 오대서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는 염송을 할 때마다 오대서원을 한다. 단지 의례에 있으니까 하는 서원도 아니다. 개인의 소원성취를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서원하고 실천해야 한다. 얼마나 크고 넓은 서원이든 무엇이든! "중생가가 없는지라 제도하기 서원이며....." 이 서원을 일상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불공이요 대승보살의 실천행이다. (법경/법장원 연구원)

왜냐하면 부처나 조사, 성자나 스승에게 의존하게 되면 새로운 가치창조를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종교 그 자체로부터의 해방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은 이와 같이 창조를 존중하면서 모방을 배격합니다. 선사가 내세운 바른 견해란 거러놓고는 청정한 지혜이고 열리는 눈입니다.

인도의 불교가 적어도 초기불교에 있어서 인간부정으로부터 출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선불교는 현실의 인간을 무조건 긍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선은 설명이나 해설에 의해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살아 있는 진리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 하고, 문으로 들어 온 것은 집안의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어려들은 지식이나 정보는 언젠가 흘러져 날아가 버릴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거리낌 없는 지혜야말로 그 사람의 무게를 이루고 그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머리와 입만 커다랗게 열려 있지 가슴과 발은 점점 퇴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인간으로 팔팔한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대지와 관계가 그만큼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대지는 모든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선은 대지와 밀착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의 단련입니다. 그 어디에도 의존함이 없이 당당하게 홀로 직립하는 모습과 세삼스레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좌선 그 자체가 본래적인 자아의 살아있는 모습이고 대안락의 법문인 것입니다.

지상설법



혜정사 수증원 지수

9세기의 선승(禪僧) 임P(臨濟)는 젊어서 황백산의 희운(希運)선사 문하에서 엄격한 수행에 의해 깨달음에 이릅니다. 그 후 스승의 곁을 떠나 고향 가까운 곳으로 옮겨 가려고 할 때 스승은 임제에게 일찍이 그 이 스승 백장(百丈)으로부터 이가의 증표로 받은 선판과 깨이 두가지 좌선의 도구를 유물로서 전해 주려고 한다. 이 때 임제는 그걸 가지고 온 시자에게 '불을 가져오너라'고 호통을 친다.

득도의 증명이나 전법의 증표를 단호히 거부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물건 따위는 당장에 불살라 버리고 말겠다는 서슬 푸는 기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수행의 체험인 개안(開眼)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증명서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는 뜻입니다. 범속한 일상성에 저항하는 것은 그 어떤

선(禪)의 정신

틀이나 인습에도 안주하지 않으려는 깨어 있는 정신의 품틀거림일 것입니다.

선(禪)은 인도에서 발생했지만 선종(禪宗)은 중국에서 일어나 우리나라에서도 그 꽃을 피웁니다. 좌선(坐禪)은 고대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법인데 중국에 들어와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임제선사에 이르러 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크게 뒤바뀝니다.

임제선사는 그의 어록에서 "어떤 사람은 배불리 밥을 먹고 좌선하여 선정에 들려고 한다. 망상을 불붙고 놓지 않으면서,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조용한 것만을 좋아한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외도(外道)의 것이다. 일찍이 조사의 말을 듣지 못했는가? 그대들이 생각을 쉬어 고요를 찾거나, 생각을 가라앉혀 삼매에 들어간다면 이런 놈들은 모두 가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이 곧 좌선인 줄만 알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으로서 선을 삼으려는 해서는 안됩니다.

유마경을 보면 한 수행승이 고요한 숲속의 한 나무 아래 앉아 좌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유마황제에게 말합니다.

"앉아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고 할 수 없소. 현실 속에 살면서도 몸과 마음이 동요됨이 없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쉬어버린 무심한 경지에 있으면서도 온갖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에 빠지지 않고 또 밖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앉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본래 천진스런 그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음이 중요하합니다. 그래서 휴정(休靜)같은 선사도 "본래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으뜸가는 정진이다."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애써 버리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성품을 더럽히지 말고 바른 것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선은 좌선으로써 행동의 근본을 삼지만 좌선만이 아니고 일상의 기거동작마다 깨어 있는 삼매의 정신으로 순화되고 통일되어야 합니다.

선은 고정된 틀이나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의 깨달음 자기의 성품을 더럽히지 말고 바른 것을 찾으라는 의미

을 수 있어야 부처님이 인정하는 좌선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선은 앉거나 눕는 데에 상관없이 앉거나 누워 있는 부동자세가 아니라 어디에나 집착이 없어서 따로 취하고 버릴 게 없는 것이 진짜 선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좌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선의 태도 특히 그 마음가짐의 잘못을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제선사는 "그대가 바른 견해를 얻고 싶거든 타이로부터 미혹을 입지 말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은 바로 없애 버려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없애고, 성자를 만나면 성자를 없애라 그래야만 어떤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되느니라."

부처나 조사, 전통이나 스승을 최고 가치로 삼을 경우 스스로 얽어매는 것입니다. 선사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유품 및 관련 자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밀교의 증흥을 위하여
총지종을 창종하신 종조 원정 대성사 !!!
대성사의 창종정신과 대비원(大悲願)을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종조기념관' !!!
이제 그 회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종조기념관에 전시할 유품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사오니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는 스승님이나 교도 여러분께서는 법장원이나 통리원 총무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자료 내용 -

1. 유품류
- 종조께서 사용하거나 가지고 계셨던 물건.
2. 사진류
- 종단관련 행사나 대외행사, 기타 개인적인 일로 찍었던 일체의 사진.
3. 종단의 교학이나 종조법설 및 기타 강공자료
- 종조님께서 강공회나 기타 행사시에 설하셨던 법문이나 강의내용을 기록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자료.
4. 서신류(書信類)
- 종조님과 왕래했던 서신류.
5. 기타
- 종조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료.

연락처 : 불교총지종 법장원 또는 통리원 총무부. 전화 (02) 552-1080~3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법공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⑨

태장계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의 보현보살(普賢菩薩)

지난 호에서는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의 오불(五佛) 가운데 북방에 자리잡고 있는 천고리음여래(天鼓雷音如來)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동방 보당여래와 남방 개부회왕여래 사이의 동남간(東南間)에 계시는 보현보살(普賢菩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 편집자 주 >

보현보살(普賢菩薩)은 동방 보당여래(寶幢如來)의 밑에서 깨달음에 대한 자각(自覺)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행위를 상징하고 있는 보살이다. 보당여래의 인위(因位)로서 종교적 발심을 나타낸다. 자리타의 행(行)을 이상으로 삼는 수행자이다.

통상적으로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함께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보살로서 석가불(釋迦佛)을 협시(挾侍)하고 부처님의 이(理)·정(定)·행(行)의 덕(德)을 담당하는 보살로 알려져 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는 십대원을 발하는 보살로, 『법화경』에서는 경을 지송하는 자를 수호하는 보살로 나온다.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흰코끼리(白象)를 탄 모양과 연화대(蓮花臺)에 앉은 모양의 두 가지가 있다. 흰코끼리에 탄 모양이 일반적이다. 그 모습은 6개의 머리가 있는 코끼리 등에 앉아서 손을 합장하고 있다. 석가여래를 협시하는 경우에는 오른손을 여의인(如意印), 왼손을 여원인(與願印)의 수인(手印)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밀교에서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함께 모든 보살의 상수(上首)이며, 금강살타(金剛薩埵)와 동체(同體)인 보살로서, 태장계만다라에서 보당여래와 개부회왕여래의 동남간(東南間)에 위치하고 있는 보살이다. 그래서 코끼리 등에 앉아 있는 보살상



보현보살을 밀교에서는 진여금강(眞如金剛)이라 부른다. 명호(名號)에서 밀교 특유의 이름임을 짐작케 된다. 밀교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밀교는 상징성과 비밀성의 불교라 불려진다.

진여(眞如)는 대승불교의 이상적(理想的) 개념(概念)으로서 우주만유(宇宙萬有)에 보편(普遍)하여 상주불변(常住不變)하는 본체(本體)이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와 개념으로 미칠 수 없는 진실한 경계(境界)이다. 오직 일체의 성품을 증득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다다를 수 있는 경계이다. 이러한 진여(眞如)가 굳건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여금강(眞如金剛)이라 한 것이다.

보현보살의 머리에는 오불(五佛)의

나가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선심(善心)은 현(賢)이요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은 보(普)이다. 그래서 보현(普賢)이라 명명된다. 신(身)·구(口)·의(意)의 삼업(三業)으로 짓는 보현보살의 십선업도(十善業道)의 덕(德)이 사람들에게 널리 확산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대일경소』에서 보현(普賢)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보(普)는 모든 곳에 널리 미치고 있다는 뜻이며, 현(賢)은 가장 미묘하고 좋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행 선사(一行禪師)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원(願)이나 행(行)이 모두 평등하고 모든 곳에 미쳐 그 마음이 묘선(妙善)하신 보살이라 풀이하였다. 바로 보리심(菩提心)으로 표현되는 보살이다. 보리심의 구체적 행이 중생구제(衆生救濟)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보현보살은 모든 보살의 으뜸이 되어 언제나 여래의 중생제도를 돕는 보살이다. 또 중생들의 목숨을 길게 하는 덕(德)을 가졌으므로 보현명명보살(普賢延命菩薩) 혹은 명명보살(延命菩薩)이라고도 한다.

모든 보살의 으뜸이 되어 언제나 여래의 중생제도를 돕는 보살로서 발보리심으로 상징되는 보살이 보현보살이다.

이 아니라 연화대(蓮花臺)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보현보살은 왼손에는 칼을 세우지 않고 놓은 연꽃을 들고 있다. 연꽃 위에는 삼고저를 자루로 삼은 칼이 세워져 있다. 이는 서원(誓願)을 나타내는 일종의 삼매야형(三昧耶形)이다. 여기서 서원은 번뇌의 마음을 예리한 칼로 끊어 없애고 선심(善心)이 확산되도록 하여 바로 옆에 계시는 보당여래(寶幢如來)의 보리심(菩提心)이 발현되도록 실천하는 데 있다.

즉, 번뇌를 끊고 보현(普賢)의 덕(德)을 배풀게 하는 보살이다. 오른손은 보당여래의 여원인(與願印)처럼 오른손을 들어올려 손바닥을 위로 하고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구부리고 다른 세 손가락은 펴서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모양의 수인(手印)을 취하고 있다. 이를 삼업묘선인(三業妙善印)이라 한다. 삼업묘선인(三業妙善印)의 세 손가락은 신(身)·구(口)·의(意)의 삼업(三業)을 의미하며, 뾰고 있는 형상은 선심(善心)이 널리 퍼져

보관(寶冠)이 씌어져 있다. 보현보살이 오불(五佛)의 보관(寶冠)을 쓰고 있음은 오불(五佛)의 중심인 비로자나부처님의 제일(第一) 보살이라는 뜻이다. 명칭과 모습에 있어 서로 다를 뿐이지 그 대표성과 공능(功能)으로서는 보현보살이 곧 비로자나부처님이고, 비로자나부처님의 수없는 덕성(德性) 가운데 하나로써 그 별문별덕이 바로 보현보살이라는 것이다. 비로자나부처님의 보리심이 불(佛)로서는 보당여래(寶幢如來)요, 그 여래의 구체적 행을 나타내는 보살이 보현보살인 것이다. 밀교에서 자주 쓰이는 절묘한 조화이다.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만다라라고 보았을 때 그 배태는 의미 깊은 조화요 상징인 것이다.

보현보살의 진언은 '나막 사만다보다남 암 아 사바하(Namah samantabuddhanam am ah svaha)'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암 아 사바하'라는 뜻이다.

(자료정리 : 법장원)



한보살의 아름다운 세상

번뇌를 줄이는 방법

번뇌는 중생의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미혹하게 하여 더럽히게 하는 정신작용의 총칭으로, 중생은 번뇌에 의해 업을 일으키고 괴로움의 보를 받아 미혹의 세계에 매어 있게 된다. 그래서 사홍서원의 하나가 번뇌를 다 끊겠다는 것이다.

번뇌는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사랑을 하는 동안에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더라는 판단분별이 개입할 때 생긴다. 우리가 번뇌를 총칭할 때 108번뇌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번뇌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연유한다. 즉,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세계를 인식할 때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는 분별이 생기고 좋은 것을 붙잡고 싫은 것을

이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실은 그 사람의 진실과는 관계없이 내가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내가 깨어 있을 때는 판단분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번뇌에 사로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을 때는 여지없이 분별을 일으키는 줄도 모르고 번뇌 속에 빠져 있었음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다.

그래서 번뇌를 줄이기 위해서는 판단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모르게 판단분별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옛말에 하루에 세 번 돌

번뇌는 인이비설심의 작용에 의한 분별심에서 발로 집착·분별심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성찰이 중요

거부하며 그저 그런 것에 대해 무관심해진다. 따라서 좋은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싫은 것에 대한 외면이 생기며, 그저 그런 것에 대한 무지가 생겨난다. 이것이 번뇌이고, 또한 고통의 실상이다.

될 새 없이 판단 분별하는 나 자신을 바라본다. 언젠가 길을 가다가 '대승 독서실'이라는 간판을 보고는 좋아하고, '모세 세탁소'를 보고는 싫어하는 나를 발견하고 웃음이 나온 적이 있다. 거기에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그런 어이없는 반응을 한 것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 집에서 차를 한대 샀는데, 차를 사고 난 뒤에는 길에서 그 차가 유난히 많이 눈에 띄는 것이다. 우리가 그 차를 산 뒤로 갑자기 그 차가 늘어난 것은 분명 아니다. 우리는 눈이 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에 대해서 특히 우리의 편견은 심하다. 그 사람

아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은 커녕 평생을 통해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지 않는 사람도 흔히 있다. 우리 불자들은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집에서 깨어났을 때와 잠들기 직전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총지중보에 글을 쓰게 된 것도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크고 작은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지중보 관계자와 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지중보를 통해 만난 여러 불자님들의 훌륭한 모습에서 우리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특히 총지중보는 출가와 재가, 여성과 남성이 차별이 없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다른 중당에서도 크게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총지중보의 무궁한 발전과 총지중보의 사부대중 모두 지혜와 자비가 수승해 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주영/불교연구개발원 연구과장>



이달의 명상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그 어느 것을 들을 지라도 마음이 동요가 없어야 하느니라. 덕이 없으면서 남의 칭찬을 듣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허물이 있어 야단을 듣는다면 참으로 기뻐할 일이다. 기뻐하면 잘못된 점을 찾아 반드시 고칠 수 있게 되고, 부끄러워하면 도를 더욱 부지런히 닦고자 할 것이다."

좋은 말이나 나쁜 말에나 무심할 수 있고 배워야 한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빠이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못했더라도 욕을 얻어 먹으면 "이 자식이 욕을 해?" 잘 만났다. 오늘 한번 맞아 봐라." 하면서 악을 쓰며 달려듭니다. 아무성인 칭찬인 줄 알면서도 자기를 추켜 세우려면 은근히 좋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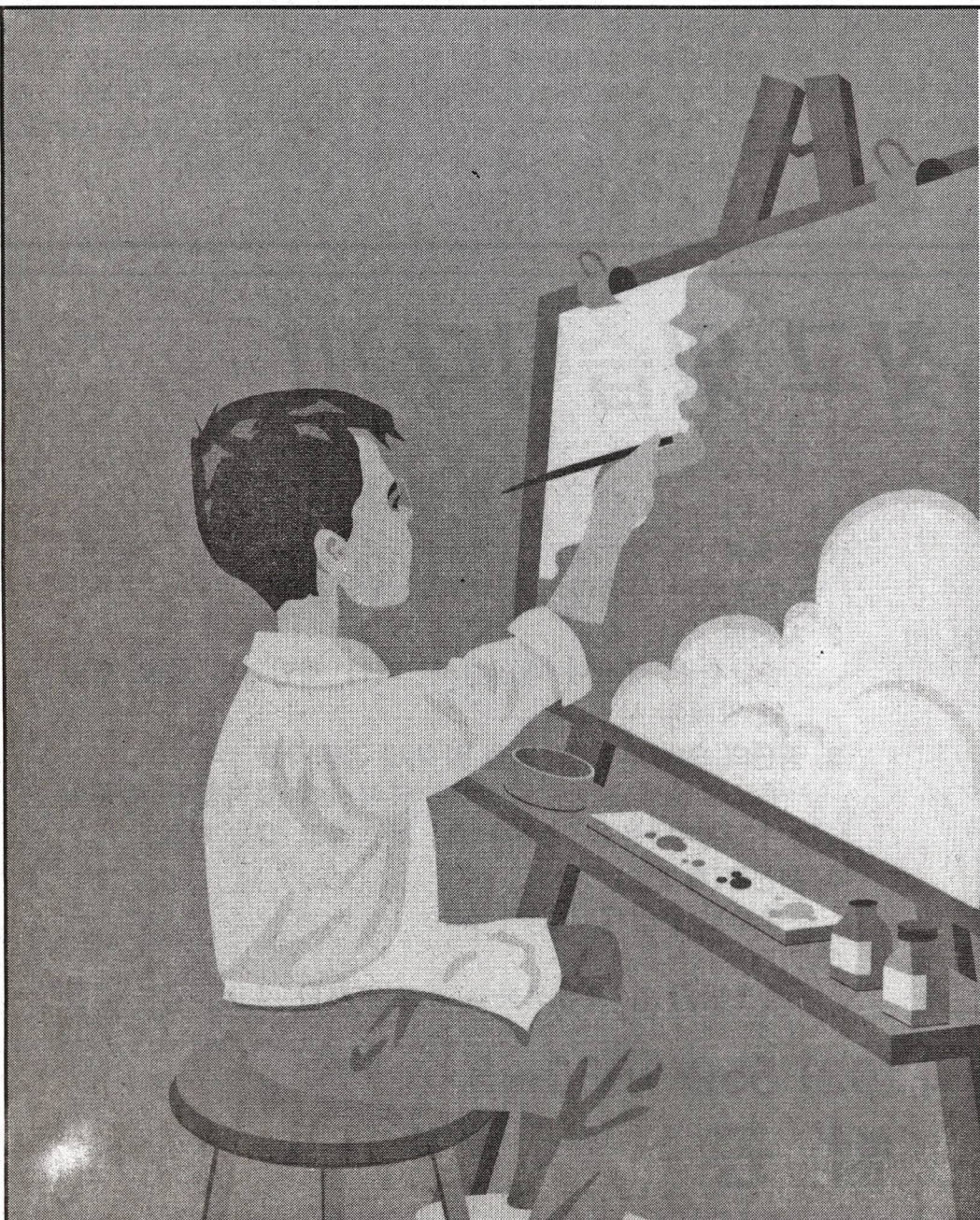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을 긍정할 줄 모르고 칭찬을 좋아하는 밑바닥에는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잘난 것이 과연 좋은 것입니까? 도를 닦음에 있어 잘난 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작용합니까?

무심도인이 되고자 하는 수행자는 잘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못생긴 나무가 되고자 할 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고, 세상의 부질없는 유혹을 면하여 도를 잘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칭찬과 비난을 받을 때 감정

칭찬도 비방도 마음에 두지 말라

의 동요가 생겨날 까닭이 없습니다. 잘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한 것도 없이 남의 칭찬을 들을 때 늘 부끄러워할 줄 알고, 허물이 있어서 욕을 들을 때 야단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일 줄 압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수행자는 잘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편집자 주>



동림기획/동아상사

(Orient Communications)

대표 修正 김 동 운
관성사 교도

인쇄 전문 업체

- 카타로그, 브루슈어
- 리플렛, 팜프렛
- 전단, 포스터
- 서적(양장, 무선)
- 다이어리, 수첩
- 청첩장, 연하장
- 카렌다(일력, 주력, 월력)
- 라벨, 스티카
- 인하BOX
- 행택, 행가
- Sample Book
- 기획, 판촉물, 기타 인쇄물 일체

서울시 중구 창림동 25-15 삼우빌딩
대표전화 : (02)2279-6123, (02)2279-6125
FAX : (02)2274-8421, H·P : 018-361-9663
e-mail : orient-kim@hanmail.net

총지논단

실천공부 ⑤

본 글은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서적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의 일부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구절절 일체중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밀교의 중흥을 창종 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교(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이루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현정파사(顯正破邪)

바른 것을 세워서 사(邪)를 바꾸자
정심(正心)을 세워서 사심(邪心)을 바꾸자
정도(正道)를 세워서 사도(邪道)를 바꾸자
정신(正信)을 세워서 마신(魔信)을 바꾸자
착한 것을 행해서 악한 것을 바꾸자
법계 진각법을 믿어서 잘 되라 하는 것은 바른 것이요 사람을 의뢰해서 잘 되라 하는 것은 사(邪)입니다.
심인(心印)을 깨쳐서 잘 되라 하는 것

은 정신(正信)이요 귀신에 빌어서 잘 되라 하는 것은 미신(迷信)입니다.

분명한 뜻을 들어버

- 0 악한 사람이 수가 많을 때에는 쓰는 법입니다.
- 0 내가 바꾸어져서 다른 이를 바꾸게 될 것이요.
- 0 내가 정신이 되어서 다른 이의 미신을 바꾸게 될 것이요.
- 0 아내가 바꾸어서 남편을 바꾸게 될 것이요.
- 0 어머니가 바꾸어져서 자식들을 바꾸게 될 것이요.
- 0 자기 고가 바꾸어져서 다른 고를 바꾸게 될 것이요.
- 0 국민이 바꾸어져서 국회를 바꾸게 될 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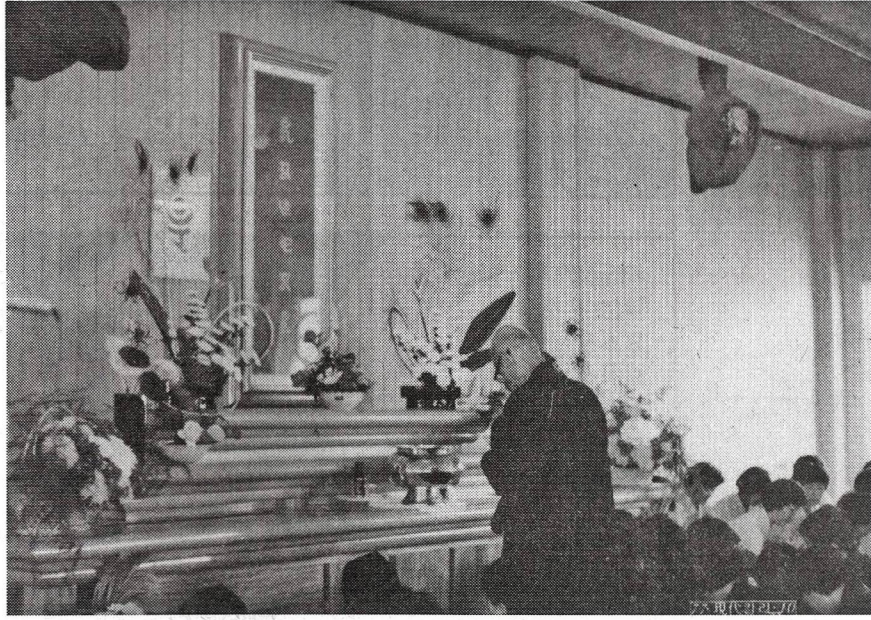
지혜 ①

물건과 고양이와 쥐, 이 셋 가운데 물건은 사랑하고 쥐는 미워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은 고양이를 기르면 쥐가 힘쓰지 못함을 아는 고로 물건을 두고 안심하고 살고 있다. 불(佛)과 반야지혜(般若智慧)와 번뇌(煩惱)의 셋 가운데 불(佛)은 극락이요 번뇌는 지옥이라. 반야지혜를 밝히면 번뇌가 멀하게 되므로 진각법은 이 법(法)을 가르쳐서 미래 중생을 행복으로 살게 하신 것이다. 자유와 해인(海印)과 독재의 셋 가운데 독재는 싫은 것이요 자유는 원하는 것이다. 자기의 심장 안에 있는 해인(海印)을 본심(本心) 진언으로써 찾아 보게 되며 독재는 아침 이슬과 같이 마르고 자유로운 세계에서 잘 살 수 있고, 행복과 종교와 재앙의 셋 가

운데 재앙은 두려워하고 행복은 환영한다. 진각법을 믿고 심인(心印)을 깨쳐서 육행(六行)을 실천하여 인과(因果)를 내증하게 되면 재앙은 불과 같이 사라져 없어지고 행복으로 잘 살게 된다.

지혜 ②

드러난 상벌 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화



정법(正法)으로 선업(善業)을 닦아 번뇌를 해탈

복이 크며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 진리의 복덕성이 크며 나의 마음이 넓고 크고 동글고 차면 나의 집도 넓고 크고 동글고 차느니라.

무상(無常)

사람이 이 세상에 날때에 어느 곳에서 왔으며 죽으며 어느 곳으로 가느뇨. 나는 것은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나고 죽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멸한 것이니라. 뜬구름 자체가 본래 실상이 없으니 나고 죽고 가고 오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사람이 죽으면 뼈와 터럭과 살은 다 땅에 돌아가고 피와 눈물과 진액은 다 물에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불에 돌아가고 움직이는 힘은 바람에 돌아가서 사대가 각각 떠나고 꿈 같은 중에 여섯 알

- 부도가 참회하면 자손이 양순하여지고 자손이 참회하면 선망부모가 고(苦)를 떠나고 락(樂)을 얻어 천도가 되나니 자손을 위하여 갖은 악업을 지은 선망부모를 위해서 삼업을 닦고 육행으로 나가 가는 데 목련존자와 같이 부모만 고(苦)를 떠나고 락(樂)을 얻은 뿐 아니라 그 자손의 공덕과 업도 한량이 없느니라.
-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 일만보신 노사나불
-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
- 구품도사 아미타불
- 당래하성 미륵보살
- 시방삼세 일체제불
- 시방삼세 일체존법
- 대성문수사리보살
- 대행보현보살
- 대비판세음보살
- 대원본존지장보살
- 재주보살마하살
- 마하반야바라밀.

부도가 참회하면 자손이 양순하여지고 자손이 참회하면 선망부모가 고(苦)를 떠나고 락(樂)을 얻어 천도가 되나니 자손을 위하여 갖은 악업을 지은 선망부모를 위해서 삼업을 닦고 육행으로 나가 가는 데 목련존자와 같이 부모만 고(苦)를 떠나고 락(樂)을 얻은 뿐 아니라 그 자손의 공덕과 업도 한량이 없느니라.

-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 일만보신 노사나불
-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
- 구품도사 아미타불
- 당래하성 미륵보살
- 시방삼세 일체제불
- 시방삼세 일체존법
- 대성문수사리보살
- 대행보현보살
- 대비판세음보살
- 대원본존지장보살
- 재주보살마하살
- 마하반야바라밀.

일체 모든 세간에 나는 자는 다 죽는 데로 돌아가나니 수명이 한정이 없다가 나 다할 때가 반드시 있는지라. 성한 자는 반드시 쇠하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며 청춘이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기운이 건장하던 안면이 병 들어서 못그 통 속에 돌고 돌아 편안히 할 때가 없으니 삼계가 다 무상이라.

업연(業緣)

사람이 사는 두 길이 있으니 하나는 악(惡)으로써 사는 길이요 또 하나는 선(善)으로써 사는 길이다. 악(惡)한 데에 습관되어 사는 사람은 악(惡)이 아니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악(惡)으로써 살게 되고, 선(善)한 데에 습관되어 사는 사람은 선(善)이 아니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자연히 선(善)으로써 살게 되니 사람은 꼭 선(善)으로써 살아가는 것을 길들일 것이니라.

선(善)에 두 길이 있으니 한 길은 일정한 계도 위에서 행하는 착함이고 또 한 길은 향상적인 계도 위에서 행하는 착함이라. 같은 유교로서도 선(善)에 다가가는 유상(有相) 무상(無相) 주의가 달라서 방편이 같지 아니하므로 일원 이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원주의는 선(善)을 행하는데 일정한 본(本)이 있는 것이요 이원주의는 선을 행하는 데에 향상적인 지혜가 있는 것이다.

번뇌와 해탈

번뇌(煩惱)와 망상(妄想)과 외도(外道)와 미신(迷信)에 집착된 사람과 자기 마음으로써 집착한 그 마음을 끊어 버릴 수 있는 것이므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심인보살님을 찾아서 그의 힘을 가지고 집착한 그 마음을 끊어 버리게 된다.

어리석은 미신(迷信)에 기울어져서 병도 내고 가난도 하며 재앙도 일으키고 걱정 근심도 많아서 화목하지 못하며, 성내는 데에 기울어져서 병도 내고 가난도 하며 재앙도 일으키고 걱정 근심도 많아서 화목하지 못하며, 원수(怨讐) 잘 짓는 데에 기울어져서 병도 내고 가난도 하며 재앙도 일으키고 걱정 근심도 많아서 화목하지 못하게 된다. 팔만사천 번뇌에 전도(顛倒)하여 일어난 모든 고통은 팔만사천 번뇌에 전도한 그 마음을 바꾸게 되면 그에 기울어져서 일어난 모든 고통은 다 떠나게 되느니라.

(자료제공 : 종학연구실)

조선화원장의 총지 동의 보감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잘 견디기 위하여 온몸에 지방질을 축적하여 준비하는 본능적인 생리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가을철에는 음식을 잘먹어서 온몸과 뼈에 진액을 보충하고 살을 찌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을철에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가을 철은 폐의 기능이 강하고 간의 기능이 쇠약해진다고 합니다. 대기는 밤과 낮으로 기온차가 심해져서 수축과 팽창을 거듭하여 과실을 익게 하는 데 일교차가 심한데다가 폐의 기능이 떨어질 때이므로 기침, 가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을은 수험생에게는 보람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시험이 얼마남지 않은 수험생들은 이 시기에 엄청난 심리

수험생 건강관리

적인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므로 잠정을 가려서 격려해주고 세심한 건강유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날씨가 선선하여 학업 성취도가 쑥쑥 올라 갈 수 있는 때이기도 하지만, 일교차가 크고 건조하여 호흡기 질환이 걸리면 비염이나 축농증, 폐렴 등이 되기 쉬우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잠을 자고, 인삼과 생강을 달인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저항력이 향상되어 호흡기 질환이 예방되고, 동시에 긴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 수시로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주스나 유자차를 마시는 것도 가을철 호흡기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수험생은 항상 긴장해 있고, 운동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신경성 위염과, 과민성 대장염이 발생하는 수가 많습니다. 신경성 위염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로 인해 위벽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밥맛이 없고 항상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나고 머리가 아파 학습 능률을 떨어지게 합니다. 과민성 대장염이란 긴장에 의해 배가 살살 아프고

걸리면 비염이나 축농증, 폐렴 등이 되기 쉬우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잠을 자고, 인삼과 생강을 달인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저항력이 향상되어 호흡기 질환이 예방되고, 동시에 긴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 수시로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주스나 유자차를 마시는 것도 가을철 호흡기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수험생은 항상 긴장해 있고, 운동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신경성 위염과, 과민성 대장염이 발생하는 수가 많습니다. 신경성 위염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로 인해 위벽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밥맛이 없고 항상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나고 머리가 아파 학습 능률을 떨어지게 합니다. 과민성 대장염이란 긴장에 의해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가 나는 것입니다. 시험 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주 괴롭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음식과 야간에 과식하는 것을 삼가해야 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장운동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하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능률이 떨어지므로 자주 깊은 호흡을 해주는 것이 좋으며, 수면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5분씩이라도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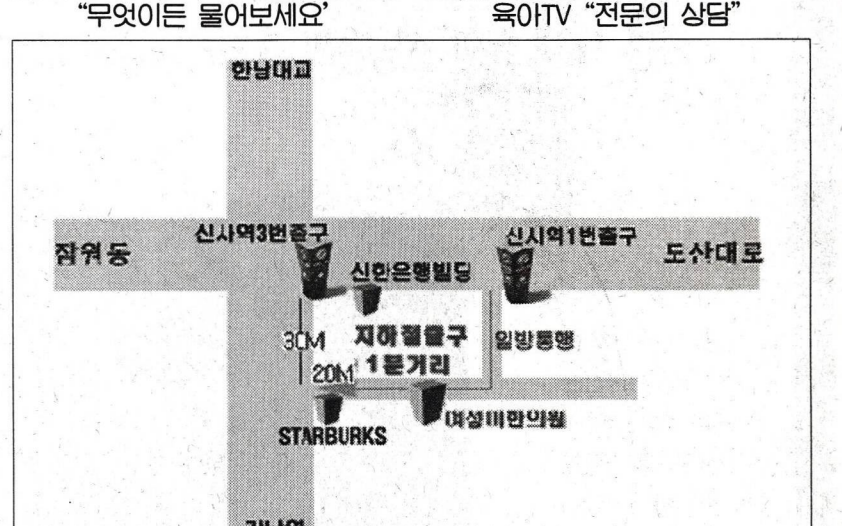
긴장을 완화시키고 피로를 푸는데 대추달인 물에 꿀을 타서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며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시계 방향으로 복부를 문지르면 소화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부족, 계속되는 긴장, 불규칙한 식사, 만성피로 등으로 인해 수험생은 시달립니다. 기계도 많이 돌리면 기름이 마르듯이, 지속적인 과로는 우리 몸의 기혈을 마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몸을 돕는 한약을 복용하여 기운을 추스리는 것도 좋습니다. 여성 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자경단(子經丹)
중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복합 자궁어혈케어

여성 美 한의원

-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제(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 진료시간
평◎◎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풍경소리

마음에 두지 말라

만행을 하는 스님이 날이 저물어 작은 암자에 들었다.
다음날 스님이 길을 떠나려 할 때 암자의 노승이 물었다.
"스님은 세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노승은 뜰 앞의 바위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이 바위는 마음 안에 있느냐? 마음 밖에 있느냐?"
"마음속에 있습니다."
스님이 대답하자 노승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왜 무거운 바위를 담아 가려고 하는가?"

- 문운정/수필가

낙엽

낙엽은 미래에의 동경도 없고 슬픔과 회색에 넘치는 감정도 없다.
그러나 세상을 터득한 철학이 있고 애련을 놓아버린 평화가 있다.
이제 어디에 떨어진다 해도 불만이 없다.
바람이 불어오는 데로 따라가면 된다.
돌담길 그늘진 곳도 좋고, 양지별 따스한 곳도 좋다.
어디인들 쉴 곳이 아니라?
하늘하늘 춤추듯이 내려오는 낙엽에는 그냥 자연이 있을 뿐이다.

- 김시현/수필가

딱뚝한 손

K씨는 쓰던 원고를 덮어두고

산책길을 나섰습니다.
공원앞에 다다랐을 때, 한 노인이 구걸하는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니다.
K씨는 급하게 주머니를 뒤졌지만 손에는 아무 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니다.
떨고있는 허공의 그 손을 K씨는 달려가 잡았습니다.
"아아! 전을하듯 노인이 K씨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싸늘한 동전 몇 닢 던져준 사람은 많았어도 이렇게 따스한 손은 선생님이 처음이십니다."
석양이 가다 말고 돌아봅니다.
금빛으로 그들의 얼굴은 물들어 있습니다.
- 맹란자/수필가

석류이야기

우리집 마당에 석류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위도가 높아서 열매는 안열리고 탐스러운 꽃이 한 달 내내 피었다 지는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석류는 과실나무가 아니라 꽃이나 보는 관상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석류나무에 열매가 세 개나 열렸습니다.
분철내내 이상 난동이 이어지더니 그게 석류한테는 약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 올해만은 과실나무의 본분을 드러낸 셈이죠.

- 이재운/소설가

(자료제공 :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나도 한마디 종단내 납골당 건립을 기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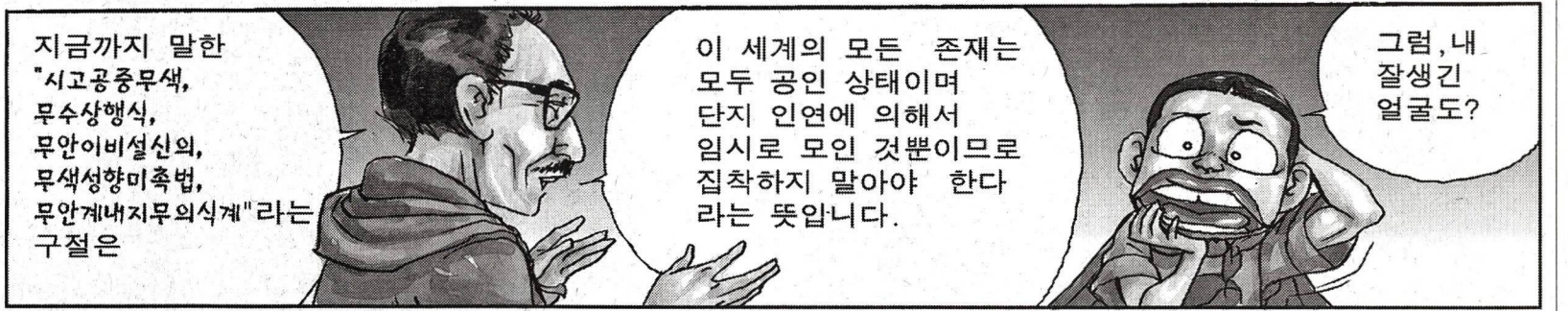
며칠 전 절친한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하늘은 갑자기 노랗게 변하고 나도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다가옴을 느꼈다.
친구는 천주교에 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모든 장례의식이 천주교 의식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천주교 신부와 교인들이 당번을 정하여 상가집을 지키며 굿을 마다하지 않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접대하고 상주와 상을 당한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 하고 친구는 화장을 한 후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에 안치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새삼 부러움이 앞섰다.
이러한 천주교 교인들의 활동을 보면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죽음 후에 맞이하는 영혼의 문 제 즉 49재와 화장 후 안치될 분신의 장소문제에 대해 잠깐동안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불교는 자신의 삶속에서 맑은 마음과 남을 위한 자비의 실천으로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번뇌와 집착을 소멸하여 현세에서 극락정토를 이룩하는 것이 목적으로 총지종의 교리와 진리가 위대하고 거룩하지만 그것은 많은 수행을 통해 이룩되는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시대가 변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젊은 자녀들은 서원당에 한 두 번 나오곤 불공을 하러 나오지 않는다. 즉 우리와 같이 스스로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불공의 공덕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이 많은 우리들이 총지종에서 건립한 납골당에 안치됨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총지종에 대한 종교적 확신을 심어 주고, 항상 부처님의 법을 들으며 삶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며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란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하루빨리 종단내 납골당이 건립되기를 지심으로 서원해 본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길 집 자)

나도 한마디는 총지중보 독자의 공간입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이나 총지중보, 총지종 종단에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총지중보사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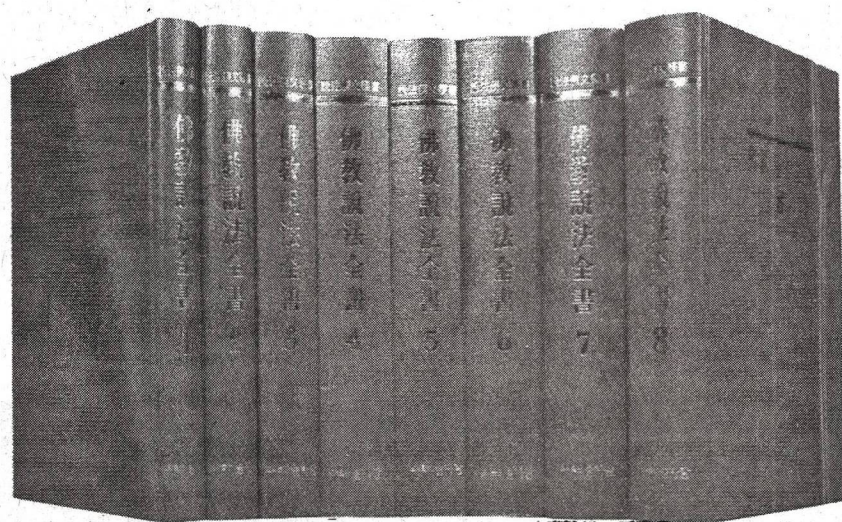
총지중보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 02)652-1080 팩스 : 02)652-1082
이메일 : kyjja@hanmail.net



불교설법전서 8권 발간!

지난 14년 동안 스님들과 포교사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바로 그 책, 불교설법전서!



- 4x6배판
1권(500쪽) 3만원
2권(593쪽) 4만원
3권(610쪽) 4만원
4권(796쪽) 4만원
5권(718쪽) 4만원
6권(800쪽) 5만원
7권(900쪽) 5만원
8권(790쪽) 5만원

창립14주년 기념 특별판매



행사·교리·불사·신행·시사 등 주제별로 구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남출판사
서울시 중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403호
Tel. (02)720-0824 Fax (02)722-8760
E-mail: sulpub@hananet.net

불교지도자의 역할과 그 수행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지침서

불교지도자론 I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불교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을 키우도록 하는 지침서.
국제신문 이흥근 기자
이상적 불교지도자상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 최초의 체계적 연구서.
현대불교 여성영 기자
한국불교의 지도자상과 지도력 배양을 논한 최초의 책
만남신문 신혁진 기자
이 책은 불교리더십의 이론을 제공하면서, 포교현장의 지도자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있다.
불교아카데미 윤철수 이사장

불자들이 수지 독송해온 신묘장구대다라니, 생명의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

임근동 선생님이 우리말로 풀이하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고 있노라니.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으신 관세음보살님이 고난에 처한 우리를 곁으로 다가오시는 듯한 느낌이 든다.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분각 스님
저자는 "산스크리트어로 지은 진언을 우리말로 옮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불립문자"라는 말대로 문자 위에 서는 것을 경계해야 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조연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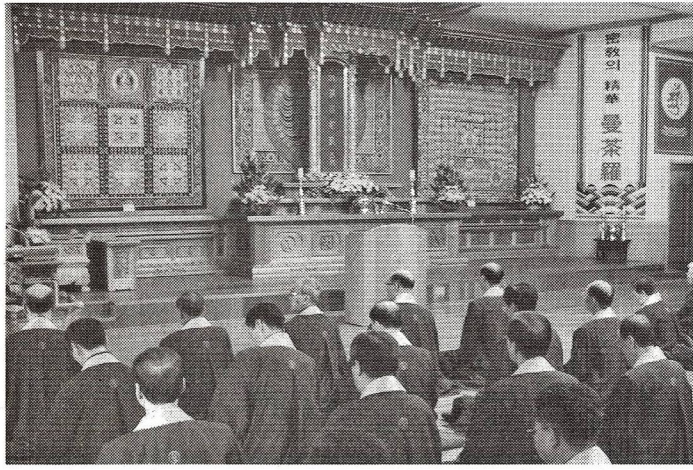
저자 임근동 (한국외대 인도어과 강사)

신국판 208쪽 값 10,000원

신묘장구대다라니 강해

총지종 추가경정 및 내년 예산 확정

교화비와 사원신축증가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 관공사, 부산 덕화사 신축공사, 과산수련원 개축공사 등 사원신축과 개보수에 예산을 책정하여 교도들의 수행공간을 증진시키기로 하였고, 포교활동화 차원에서 각종 도서출판, 홍보차원에서 포교비를 증액하였다.

총지종 법조 총리위원장은 이번 강공기간동안 "승직자 및 교도들의 불명령을 전산작업화 하여 중복된 불명령의 작명을 피하고, 스승님들의 의식의 전환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내년도에 인도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정사님들의 정복을 개량한복으로 교체하며, 도제양성을 위한 투자를 증가하고, 자성학교, 사회복지사, 예체능 등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종단적

단 36억 4백만원으로 확정하였다.

총지종은 내년도 예산에서 교화활동과 차원에서 교화비를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기로수당 적립금을 신설하여 매년 3억씩을 적립하여 승직자들의 노후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법원사, 흥국사 헌공불사, 보살님들의 수계법회 등 종단의 현황을 설명하고 스승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원불교 첫 여성교정원장

화합을 중시하며 지방분권적 중무행정



이혜정(66세 법호 관타원) 교무를 선임했다. 원불교 10월 14일 전복 익산 중앙총부에서 열린 제 133회 임시 수위단회의(원불교 최고의결기구)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혜정교무를 선출했다.

이혜정 교무는 "첫 여성 교정

원불교 개교 88년을 맞는 원불교는 역사상 처음으로 교정원장(총무원장)에 이혜정(66세 법호 관타원) 교무를 선임했다. 원불교 10월 14일 전복 익산 중앙총부에서 열린 제 133회 임시 수위단회의(원불교 최고의결기구)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혜정교무를 선출했다.

이혜정 교무는 전복 정읍출신으로 원광대 불교학과를 나와 남부민, 정릉, 순천, 서면교당 교무를 거쳐 중앙총부 공익부장, 종로교당 교감, 서울교구장, 교정원 교화부원장, 대전 교구장, 중앙 훈련원장을 역임했다.

천태종 한중일 합동법회

중국 국경사서 지자체사 탄신법회

한·중·일 삼국 삼국 천태종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아시아 불교의 사상적 기반을 완성하고 천태종을 창종한 지자체사 탄신 1465주년을 중국불교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지난 10일 중국 저우강성 탄타이산 국경사에서 열렸다.

천태종 운덕스님은 "천태 지자체사의 제자로 국경을 초월한 한·중·일 삼국이 한자리에 모여 법연을 나누게 돼 기쁘며 삼국 천태종은 천태 지자체사의 사상을 더욱 빛내 앞으로 불교가 사회발견과 현대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동종 천태종 종정과 운덕 총무원장 스님 등 천태종 스님 70여명은 기념법회에 이어 지자체사 육신탑이 봉안된 진각사와 대중에 법을 설한 설법대를 참배하고 탄타이현 시내에 위치한 천태영국원에서 열린 지자체사 탄신기념불교 음악제에 참가했다.

대학 수능생들의 다양한 "합격기도"

수능합격기원 108배, 장미전달 릴레이

불교계 종립학교 수험생들은 다가오는 수능시험에 고득점을 위한 "수능고득점 108배 릴레이", "수능합격 기원 108배", 장미 108송이 전달하기" 등 다양한 행사의 범위가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입시철이 되면 학부모들은 유 명교찰과 사찰을 찾아 합격을 위한 기도를 올렸으나 이번에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동참하여 합격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불교적 염원을 의한 합격을 기원하였다.

대학 수능생들의 다양한 "합격기도"

수능합격기원 108배, 장미전달 릴레이

불교계 종립학교 수험생들은 다가오는 수능시험에 고득점을 위한 "수능고득점 108배 릴레이", "수능합격 기원 108배", 장미 108송이 전달하기" 등 다양한 행사의 범위가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입시철이 되면 학부모들은 유 명교찰과 사찰을 찾아 합격을 위한 기도를 올렸으나 이번에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동참하여 합격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불교적 염원을 의한 합격을 기원하였다.

종립학교에 근무한 관계자는 "불교의 근본교리에 설하듯이 견성은 본인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수험생들이 스스로 108배와 참선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사찰에서 100일기도를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종립학교에 근무한 관계자는 "불교의 근본교리에 설하듯이 견성은 본인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수험생들이 스스로 108배와 참선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사찰에서 100일기도를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고득점을 올릴 수 있을 것이며, 학부모, 교사, 학생이 일심동체로 지극한 정성으로 발원하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르신들의 가을소풍

역삼재가노인센터 10월봉사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가을 정취를 느꼈다.

또한 10월 2일에는 노인의 날 음식나누기 행사로 태풍메미의 영향으로 행사를 자제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다과제공의 조출한 자리를 마련하고 삼성SDS(주)에서 과일을 후원하여

어르신들의 가을소풍

역삼재가노인센터 10월봉사

어르신들에게 전달하였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가을나들이를 10월 7일 양재 시민의 숲에서 강남재활주간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맑은 가을하늘 아래 어르신들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보물찾기, 풍선 릴레이 등의 경기를 펼치며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었던 이번 행사는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생 20여분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더욱 빛났다.

신행체험 ⑥

정진속에 해탈의 길



김형연 보살 (정각사 신정회 회장)

매일 매일 하는 불공이 지만 항상 새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불공을 놓지 못하고 나의 삶이 아닌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 진리를 만난 것이 남들보다 그리 오래 된 것은 아니고 남들보다 잘 나고 능력도 없는 나에게 총지종에서 가장 큰 사원의 신정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부여 받은 것은 나에게 너무 과분하지만 항상 웃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수련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생활하고 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집안이라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를 따라 현교에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정각사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심도 나지 않아 수행에 태만하였지만 점점 정진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지혜가 밝아지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예로 친정올케가 있었는데 암수술후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해서 방문을 해보니 머리가 너무 아프고 우울증 증상이 있어서 신경외과에 입원해 있어 으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정올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각사에 데려가 불공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편에 따라 불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9일동안 불공을 정해놓고 잠을 자지 않고 불공을 하였더니 어느날 갑자기 친정올케가 친정 작은 아버지와 사촌 동생의 영식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스승님과 함께 영식불공을 하였더니 친정올케는 아팠던 병이 갑자기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 어날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믿지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친정올케는 병이 완치되어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형님께서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남보다 잘나지도 뛰어나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불공과 정진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입교하였을 때 스승님들께서는 '불공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반드시 그 과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때는 아무리 불공을 해도 공덕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자신의 불공덕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정진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스승님들께서 '불공을 열심히 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밖에는 한 줄기 빗방울이 처마 끝에 내려 앉아 작은 소리로 지저귀며 달려옵니다. 빗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창문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간간히 찾아오는 새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서원당에서 영송정진을 한 지도 벌써 수십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 세월동안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여유시간만 있으면 서원당에 나와 비로자나 부처님께 합장 배례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슬픈 일, 즐거운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처님이요, 저를 지켜주는 사람도 부처님,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꾸준한 정진만이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 행복한 삶은 이 순간 보람된 생활속에 달성

스며난 덧없는 것, 한 순간 잠시 왔다가 있어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예로 친정올케가 있었는데 암수술후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해서 방문을 해보니 머리가 너무 아프고 우울증 증상이 있어서 신경외과에 입원해 있어 으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루 아니 현재 이 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처님과 인연으로 억만년 전부터 물려받은 전생의 업을 소멸하고 현재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해탈을 이룰 때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법을 만났음에 매일 부처님과 이야기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지종의 진리의 문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영송 정진을 계속하다 보면 부처님의 지혜문이 자동으로 열려 모르는 것이 없게 되고 미라다가 올 마당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진 수행도 만 마음대로 해야 합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남편, 아들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에서는 어떤 지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수정처럼 맑고 청아한 마음으로 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처럼 생각의 흐름을 흘러가는데로 대자유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 문명이 들리고 지혜를 증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니들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희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희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남골당 건립 추진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회 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7주) 이상 친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 금 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마음자리를 살피고 팔정도의 실행이 해탈의 길

청아한 가을하늘 사이로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을햇볕을 받으며 산과 들은 빨강과 노란 옷으로 갈아입고 너울너울 춤을 추며 거리의 나그네들을 유혹하고, 들에는 한해의 농사를 마무리 하는 곡식을 수확하느라 탈곡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밭에는 풍과 깃발을 떨고 있는 아낙네들이 그윽린 모습으로 한가롭게 지리잡고 있고, 감과 사과나무들은 잎사귀가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사이로 과일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이른 새벽에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진주행 버스를 타고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로 3시간 30분정도 타고 가니 남강의 물줄기를 따라 아담하게 지리잡은 진주 시가지가 보인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차장좌에는 가을의 아름다움 정취를 자랑하듯 단풍들이 자신의 옷을 이리저리 자랑하고 있었다.

진주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10분정도 달려가니 강변사이로 길다랗게 늘어진 대나무숲사이로 화음사의 정경이 보였다.

조그마한 집채에서 들려오는 울마니반메혹의 염소소리는 대지의 무릇 중생들을 교화하여 해탈의 열반 뒀다배를 타고 피안의 세계에 들어가고 있었다.

화음사의 유래

화음사는 총기14년 4월 10일 진주시 장대동에 단독집을 전세로 임대하여 지선사원당으로 개설하였으며, 총기16년 진주시 마경동에 대지 200평을 매입하여 불단이설공사를 한 후 화음사로 개칭하였으며, 초대주교로 법성, 정일해 스승님이 근무하였으며 총기22년부터 현 주교이신 법정, 법지원 스승님이 재임하시고 계신다.

화음사 정문을 들어서니 초라한 집이지만 나무들이 웅성하게 지리잡으며 법정님과 법지원 스승님이 먼길에서 오는 나그네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법정님과 법지원 스승님은 올 12월이면 일선 사원에서 교화를 그만두고 내년에는 사가에서 기로스승으로 자신의 수행에 전념할 예정이다.

그래서 나그네의 발길을 이곳 화음사로 돌리게 하였는지 모른다. 본존 앞에 합장 배례하고 스승님들께 그동안 교화하시면서 가장 인상에 깊은 설법은 청하였더니 "어찌 떠나는 사람이 설법할 자격이 있었습니까? 극구 부락을 하니가 몇마디 하겠소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팔정도의 실천이 해탈의 길

보살은 여덟가지 덕목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진리, 바른 선정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바른 견해 즉 정견은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세상을 초월하여 이상·인상·중생상·수자상 이 네가지 상에 집착하지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아상이란 재물, 명예, 학문의 지위를 믿고 "나"라는 상으로 남을 무시하고 자기 하는 일은 전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할



나다. 인상은 어질고 예의바르고 의리가 있는 것 같이 하나 건방지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며 자기 잘못을 모르고 죄를 가버어 여기는 사람을 말한다. 중생상은 좋은 일은 자신이 다 한 것처럼 하고 잊 사람 앞에서는 혼자 한 것처럼 아부하며 평소에는 권모술수를 부리고 나쁜 일은 남에게 돌리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상대에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말한다. 수자상은 힘든 일은 피하고 편하게 생활하려고 행동하며 늙은 것을 격정하여 생애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 복만 닦고 바른 도는 닦지 않고 육신에 집착 많고, 고집이 세며, 심신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둘째 정사유, 바른 생각은 성내거나 탐욕이나 여러색을 모든 번뇌를 분별하여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고 계행과 성전과 지혜, 해탈과 해탈지견을 분별하여 편안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어 즉 바른 말을 바르게 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것과 속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과 욕설이나 거짓말, 이간양설, 쓸데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피하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지 않고 자비로운 말로 서로 돕고 위로하며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정업 즉 바른 행동은 몸과 동작을 청정하게 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쁜 업보를 짓지 않고 모든 업보가 소멸되도록 염승을 많이 하고 참회하며 실천하고 화합하여 착한 일만 순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명 즉 바른 실천, 생활을 뜻합니다.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것,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을 버리고 남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남에게 아픈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째 정정 즉 바른 노력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하여 부지런히 노력하며 방일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스러운 도에 들어 능히 수순하여 부지런히 땀을 일으키면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정법 즉 바른 진리를 잊어

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지종의 진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바른 진리를 믿고 배워서 부모, 형제, 자녀들을 모두 제도시켜 종교의도가 없이 항상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덟째 정정 즉 바른 선정을 찾아서 바깥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고 모든 법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 화장막의 불 속이나 무덤속까지 함께 들어갈 가족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친척이란 모두가 보이지 않는 업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한 도리는 다하되 지나친 기대나 집착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둘째 부인은 바로 이 몸뚱이입니다. 이 몸뚱

이 평등한 것이니 만큼 일체 중생을 능히 해탈하여 모든 재물을 초월하고 마음을 고요히 맑고 밝게 간직하여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괴로움은 없어지고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여 보살들의 도를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괴로움은 없어지고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여 불도(佛道)를 이루게 된다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적응하고 중생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이는 아무리 잘 먹고 잘 돌보아도 나이 60이 되기 전에 고를 자동차가 되어 버립니다. 단 10년이라도 더 끌고 다니면 금방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가 죽고 싶어 죽는 경우는 세상천지에 없습니다. 수명이 다하고 세상 인연이 다 하였으니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이 죽는 것이 죽음이 좋아서 사라져가는 몸뚱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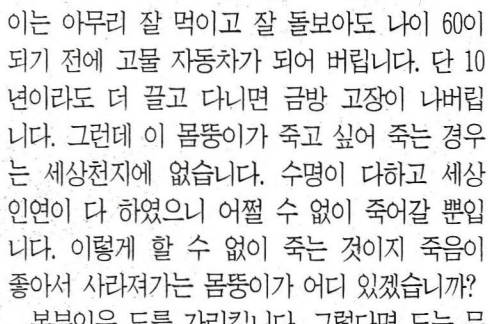
본부인은 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도는 무엇인가? 마음 닦는 것이 도입니다. 나의 참된 마음자리를 살피고 자성불을 잘 돌보는 것이 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1년 365일 중 단 하루라도 마음자리를 가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자리를 팔사하고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돈과 가족과 몸뚱이를 돌보기에 급급하여 마음자리 따위는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곧 눈에 보이는 각종 번뇌를 좇아 밖으로 밖으로 헤매 뽀뽀합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도 잠시 보이지 않으면 동네를 돌아다니며 찾지 마련인데, 참된 주인공이 마음부처가 희노애락, 우비고뇌 속에서 수없이 상처받고 시달려도 찾아보지않는 한 차례 다둬주어주는 일조차 마다하며 살아갑니다. 근분을 돌아보지 않고 돈·가족·몸뚱이를 위해 부실히 먼지를 일으키는 여러색은 짓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고통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됩니다. 하루빨리 부처님께서 해탈하는 참 비결인 도를 닦기 위해 우리의 마음자리를 찾는 일ге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자리를 살피라

사처경의 내용을 보면 한 남자가 네부인을 거느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같이 동행할 사람을 물을 때 첫째부인만 동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야기 속에서 넷째부인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몰두합니다. 사탕이나 꿀물처럼 당장 우리 자신을 달콤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요, 없으면 금방 비참함과 무력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한평생을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불가결한 것이기는 하지만 돈은 결코 나의 진정한 반

주소 : 경남 진주시 마경동 9-3
전화 : (055) 755-4697



주요한 덕목으로 실천하고 내 자신을 알고 인과를 깨달아서 불공하면 중생재도는 마니보배가 되고 소원성취는 무진덕이 되며 가정평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할 때 해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록 하는 것입니다. 이 팔정도는 불법 수행의 중요한 덕목으로 실천하고 내 자신을 알고 인과를 깨달아서 불공하면 중생재도는 마니보배가 되고 소원성취는 무진덕이 되며 가정평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할 때 해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1. 처음에 어떠한 인연으로 스승으로서 교화를 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전수님은 열반하신 정각원 스승님과 인연으로 교도로서 수행하고 있을 때 정각원 스승님께서 전수님은 나를 도와서 교화할 인연을 전생으로부터 타고 났으니 같이 교화하자고 권유하여 교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후 1년 뒤에 저도 전수님과 함께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 교화를 시작하였습니다.
2. 올 12월이면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교화하셨던 곳은 어느 곳입니까?
총기11년도에는 정각사에서 초임으로 있었고 다음해에 청주 해정사에서 1년간 교화하였고 총기 14년에 법황사 겸무, 총기 18년에 일상사 주교겸무를 하였고 총기22년에 화음사에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교화하였습니다.
3. 그동안 교화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지종은 불상과 법구가 없기 때문에 교화하기에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불교라 하면 불상과 법구를 떠오르게 되는 데 특히 화음사와 같이 낙후된 시설에서는 불단의 장엄이 없기 때문에 교도들이 이웃사람들을 제도하여 사원당으로 데리고 온 후 사이비 불교라 하며 비난을 하여 교도들도 떳떳하게 말을 못하곤 합니다. 우리 진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또한 대다수의 교도들은 교리공부를 하러 사원에 나온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일선상의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빌기 위해 불공러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도들은 스승들에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집안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며 대처방안을 물어봅니다. 스승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장례식이나 화장장, 묘지에서 타종교들은 많은 인원과 법구로서 영사천도불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염주하나로 울마니반 메혹만 염송하고 있어 교도뿐만 아니라 스승들도 소외감을 느낍니다.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적응하고 중생들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시대적 변천에 적응하지 못한 종교는 결국 그 시대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4. 일선사원에서 교화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입니까?
보살들이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불공하여 재난이 소멸되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가장 보람되며 스승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불공한 공덕으로 전생부터 쌓여온 업장을 소멸하여 편안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5. 퇴임하시면서 총지종의 모든 교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타 종단의 신도보다 우리 총지종 보살님들의 땀방울이 우월하다고 봅니다. 웅장한 절이 주는 것도 아니고, 염불소리의 공덕도 아니라 육자진언과 삼밀관행으로 진리대로 땀방울을 내기만 되는 것입니다.
6. 화음사 교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스승은 법계의 사명으로 인연이 된 것이라 보살님들의 길잡이입니다. 스승의 말은 부처님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도 잘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스승은 교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잘 되기 위해 노력하고 보살가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7. 퇴임하시면서 후배 스승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승단의 화합입니다. 서로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타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여 화합된 종단을 이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 퇴임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남은 여생을 부처님 은혜 갚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 갈 것입니다.

